

- 11)속사도: 교사와 새로운 법의 수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강조
- 12)금욕적 수도사들: 그리스도의 겸손 강조
- 13)부흥사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 강조
- 14)은사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 강조
- ①실존주의자들: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강조

⇒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우주적인 그리스도’(the cosmic Christ)를 제안함. ‘우주적’은 ‘우주와 관계하는’ 또는 ‘지극히 광대한’이란 의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5가지로 제시함

①선재(先在)하시는 그리스도

-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 중의 제2위 하나님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동등함’

②창조주 그리스도

- 영지주의 같은 이단은 그리스도와 창조를 분리시키나 정통 기독교는 항상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인정함
- 조화로운 우주인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창조물이며, 이 창조물은 세속적이거나 불경스러운 것이 아님

③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나, 인성으로는 우리들과 같은 본질을 취하셔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 - 칼케돈 회의(451)

④구속자이신 그리스도

-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과 피조물을 구속하시기 위함
-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 (고후 5:19)

⑤주님이신 그리스도

-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위 5가지 특징을 가진 정통 기독교의 그리스도

(2) ‘문화’라는 용어의 의미

- ‘문화’의 의미(협의): ‘개화(開化)되다’(having culture), ‘문명인이 되다’의 의미
(문명인: 음악, 미술, 문학을 감상할 줄 알고, 시사에 밝으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문화’의 의미(광의): ‘경작하다’, ‘개간하다’는 뜻의 라틴어 ‘*culare*’에서 온 말. 땅 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 감정을 도야하는 것이란 의미로 확대.
→ 문화란 “도구, 언어, 추상적 사유의 체계를 사용하여 지식을 배우고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종속하며, 사고와 언어와 행위와 가공물의 형태로 구체화된 인간의 제반 행동 양상과 그 산물” (문화는 즉, 하나님의 피조계를 사람이 ‘경작한’ 결과)

① 문화란 인간의 활동이다

- 문화란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과 손을 통한 활동의 결과와 관련됨
- 문화는 고귀한 면 뿐 아니라 폭력, 탐욕, 부패, 전쟁, 살인 등과 같은 어두운 면도 갖고 있음

② 문화란 '피조된 사물의 질서'와 관련된 행위이다

- 문화는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지만, 자연이 없이는 문화라는 것도 없음
- 문화란 인간의 행동이지만 피조된 사물의 질서 안에서 표현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

③ 소위 중립적인 문화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세상에서의 그의 활동 역시 비도덕적일 수 없음
- 인간의 문화 행위는 그가 가진 가치들(values)을 반영하는 것임. 그리고 그 가치들은 삶에 관한 근본적 종교적 확신에서 유래하는 것임

⇒ 문화란 하나님의 피조세계 내에서의 인간 활동의 결과. 사람은 피조계를 개발하고, 자기 헌신의 반영인 문화를 창조함. 모든 문화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3) '모델'이라는 용어의 의미

- 모델: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측정할 수 있는 기독교적 삶의 방식의 모형'으로 정의
- 문화에 대한 책임을 생각할 때에 고려해야 할 옳은 요소들을 모두 다 고려한 단 하나의 모델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 로버트 웨버의 3가지 유형 모델: ①분리 모델, ②동일시 모델, ③변혁적 모델

2. 문제 제기

(1) 문제의 확인

- 사건: 1973년 약 50여 명의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시카고 중심부에 있는 YMCA 건물에 모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의를 함. 그리스도인과 전쟁, 그리스도인과 정부, 그리스도인과 인종, 그리스도인과 경제적 책임 등의 4분과로 나누어 분과 토의도 진행. '그리스도인과 경제' 분과에서 분과장이 미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 년에 2,000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살 것을 촉구함. 이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분과는 우리가 생활을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일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고 하셨음
- 반론: "나는 그런 사람 중에 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가로서 내가 가져야 할 분명한 생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는 고객들을 위해 벤츠를 소유해야 하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그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야 하며, 협상이 달 될 수 있도록 요트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에 나는 교회나 교회 관계 기관에 3만 5천 달러의 헌금을 했습니다. 만일 이 모임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직업을 버리고 청빈 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그만큼의 헌금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했으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어떤 사업가의 말

- 그의 문제는 그가 동시에 두 영역(two realms)에서 살고 있다는 데 있음
 - 1)문화의 영역: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재계의 위치를 인정받기 위한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협상도 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무절제한 사람들도 만나야만 함
 - 2)기독교의 영역: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하며,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 행동할 필요를 느끼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도 함
-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이 세상에서 실제로 될 수 있는 것 사이의 긴장 가운데 있음. 이것이 문화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이며, 수많은 분파의 원인이기도 함

(2) 이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들

-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문제'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지 못함. 이에 대한 반응은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①초연형(indifferent)

-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앞서 말한 사업가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함. 그들은 명백한 갈등에 반하여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하는 일종의 스토아주의를 나타냄. 그들은 삶 전반에 대해 운명론적인 접근을 시도

②반동형(reactionary)

-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분명하고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을 취함. 넓게 말해서 그 사업가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입장은 1)그의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2)그의 사업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비판이나 변화도 허용하지 않는 것. 이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일 뿐임

③경건형(pious)

-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일단의 포괄적인 경건으로 주의를 돌려 문제 자체로부터 초점을 옮겨버림. 즉 사업가는 좀 더 많은 교회 일을 해야 한다거나 매일 큐티를 잊지 말아야 한다거나,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직장에서 증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등의 권유를 받게 됨

⇒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반응에 대한 비판:

①너무 단순하여 문제를 실제보다 더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

-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백인들)은 풍족하게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며 나는 나그네처럼 지나갈 뿐이다', '땅엣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엣 것을 찾으라' 말하기 쉬움
- 그러나 이런 전형적인 답들은 현상을 너무 환원적이고 단순화시켜 보는 것임

②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원화하는 경향이 있음

- 단순화된 대답은 '성'과 '속'의 두 부분으로 거짓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음
- 그리스도인들이 성과 속의 두 영역, 두 존재의 차원을 통합하지 못하면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서로 다른) 두 개의 삶을 사는 것이 되며 이는 계속해서 고뇌와 갈등을 낳음
- 이원화 경향은 '초종교적 광신'(super-religiosity) 초래: 초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밖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함. 그 결과 종교적인 껍질 속으로 들어가버림. 문학, 예술, 사회학, 철학 등 모든 학문은 시간 낭비로 경멸함
- 이원화 경향은 문화에 대한 책임을 도덕적인 것으로만 보려는 경향 초래: "세상은 지옥으로 가라지. 에너

지가 소진되고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불의가 기아가 만연해도 나는 나 자신의 도덕성만을 지키면 돼.” 그리하여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술과 담배를 삼가며, 춤추지 않고, 노름을 하지 않는 개인적인 윤리로 대처되며, 기아와 빈곤, 전쟁과 비인간화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기독교인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함

(3) 문제의 복합성

-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한 세 가지 해결 지침

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세상 안에서의 삶이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 성경적 근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며, 더욱이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셨다면 피조된 사물의 질서나 삶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며 타당한 것임을 확증하는 것임. 더구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주적’임. 그러므로 사람 뿐 아니라 피조 세계도 구속받을 것임
- 그러므로 결국 모든 삶이란 종교적이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결론에 이름. 그러므로 종교적인 활동은 경건한 행위에만 제한될 수 없으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임
- 사례의 사업가는 자신의 기업 활동이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됨

②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두 개의 서로 갈등하는 영향력인 두 가지 세력이 있다.

- 이 두 가지 세력은 각각 ‘악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함. 전자는 욕심, 탐욕, 악의, 보복, 여러 충동에 따라 움직임. 후자는 사랑,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용서, 관용, 인내, 평화 등에 따라 움직임
- 삶이란 악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전개되는 것임

③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세 가지 필연적인 반응을 잘 조화시켜야만 한다.

1)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확인해야 함

- 우리는 우리가 저항하려는 것의 한 부분이기 때문
- 우리는 물질주의, 낭비, 불평등과 불의, 차별 등을 만들어내는 체제의 영속화에 참여하고 있음

2)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 저항해야만 함

-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앞서 확인했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만 함
- 그런데 그 방법은?

3)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구조가 더 인간적이고, 더 기독교적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를 변혁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함

-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업가의 사례에 대한 충고들: 어떤 분과위원들은 기업을 처분하라고 권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조심하여 기독교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며(그러나 그 누구도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함), 다른 이들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각기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대답’의 어느 한 부분만을 말한 것임

- 더 나은 대답은 이 세 반응 중 어떤 것도 우위에 놓지 않고 잘 조화시키는 데 있음

(4) 결론

- ‘문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동시에 ‘세속에서’ 사는 방법의 3가지 전형:
① 세속으로부터의 분리, ② 세속과의 동일시, ③ 세속을 변혁시킴